
한국대학스키연맹
22/23시즌 시즌개막식
22/23 SEASON
KUSTA
Korea University
Ski Team
Association
22/23시즌
한국대학스키연맹

한국대학스키연맹 졸업생들께 드리는 신년사

2022년 한해가 저물고 2023년 새해가 밝으며 한국대학스키연맹의 75번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58대 임원진은 연맹의 운영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연맹 소속팀 재학생들의 활동 지원과 연맹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OB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1/22시즌의 경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의과대학스키대회, 전국유소년스키대회(일반인에 개방)를 각각 하루에 걸쳐서, 전국대학스키대회 및 연맹배(OB 자녀대상 유소년배 및 OB전 포함)를 5일간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 시즌 중 재학생 대상의 연수회 및 레벨1 검정을 연맹지원 하에 시행하였습니다. 전국유소년스키대회는 일반인의 참가를 허용하여 연맹의 외연 확대와 함께 설상스포츠의 대중화를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비시즌 중, 75대 학생위원회 주최로 주장단 리더쉽트레이닝(17팀 44명, 더드림핑), 신입생 환영회 (40팀 309명, 서울주막1호점), 동계스포츠 의과학세미나(15팀 53명, 고려의대), MT(22팀 211명, 용평리조트), 체육대회(15팀, 86명, 한국외대) 등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졸업생들로 구성 된 연맹임원들의 2022년 비시즌 사업으로는 3회에 걸친 임원회의 및 9회의 골프 월례회 (4팀, 두번째 수요일, 청평마이다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소외된 설상스포츠 종목을 지원하고자 한국대학스키연맹 초청 자선골프대회(8월30일, 골프클럽 Q)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우천으로 인하여 경기는 취소되었으나 160명 가까운 졸업생들이 모여 우리의 지난 날과 현재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라셀라와 공동으로 선정한 연맹와인은 OB들의 적극적인 호응 덕에, 220만워이라는 학생 지원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후원사 영입을 위한 와인파티(평창동)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다양한 후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소모임을 통해 연맹 졸업생들 네트워크의 확장 및 재학생들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하던 홈페이지(www.kusta.or.kr)가 올 상반기에 오픈되어 현재 재학생 및 졸업생 회원가입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의 소통 창구 및 대회신청 등의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검색에서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23 시즌의 합숙참가 인원은 45팀, 518명이며 주요 활동 계획은 시즌 개막식(1월4일, 용평), 스키 기술 및 이론교육, 검정(1월16~18일, 지도자연맹 공동, 용평), 한국대학스키연맹 취업 토크콘서트(1월31일) 등과 함께 전국의과대학스키대회 및 회장배 스키대회(1월26일), 전국유소년스키대회(1월29일), KUSTA CUP 전국대학스키대회(2월9일~11일, OB 자녀대상 유소년부 및 OB부 포함), 시즌 폐막식(2월11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학생위원회의 비시즌 활동은 주장단 리더쉽트레이닝, 신입생환영회, 체육대회, 동계스포츠 의과학세미나, 전체 MT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연맹임원단은 수차례의 임원회의, 23년 새로운 연맹와인 지정 행사, 후원사 영입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졸업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골프월례회 및 팀대항전(7팀, 두번째 수요일, 청평마이다스cc 및 화산cc), 제2회 한국대학스키연맹 초청 자선골프대회(6월29일, 40팀, 레이크사이드cc) 등이 계획되어 있으니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임원회의 외에 모든 연맹 주최 행사에는 모든 졸업생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팀의 졸업생들이지만 스키, 합숙, 훈련, 대회라는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절 스키부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젊은 날이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에 흥분하고 미숙함에 안타까워했던 젊은 날의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지난 날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고 풍성한 것이 되는데 우리 연맹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2023년 1월9일

58대 한국대학스키연맹회장 권순영 드림